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가족구성원들의 여가시간 활용 분석

최종후¹ · 소선하² · 이동희³

요 약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생활시간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활시간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시간 소비 내용과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의 주요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9년과 2004년에서 실시된 국민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가구 구성원의 여가시간에서의 그 동안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02년 7월 1일 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원들의 시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조사자료로부터 4인 가족의 경우를 선택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시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시간생활변화 자료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 국민생활시간조사, 상관분석, 선형모형, 주5일 근무제.

¹339-7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E-mail : jhchoi@korea.ac.kr

²(발표자)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E-mail : fontaine@korea.ac.kr

³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연구조교수. E-mail : ld0351@korea.ac.kr